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새교우 주소
 - 손명식 집사/구자금 목사
51 Wellford Rd., White Plains, NY 10607
(914) 345-5739 (H)
 - 이효정 자매
133 Hillside Place #3B, Eastchester, NY 10709
(646) 299-5365 (C)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7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백희진 집사 (시편 89편 20-37)

이번 주 친교: 황혜영 집사, 안정자 권사

다음 주 친교: 안상민 집사, 제임스 리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Edwin Kim 전도사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Acts) 11:19-30; 12:25-13:3** -----인도자
 설교(Sermon)-----“**비로소 그리스도 인이라 일컬음을**”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에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Hymn) ----- 160장 (통150장) “무덤에 머물러”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 24 ----- 민흥기 집사
 찬양(Choir) ----- “저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Acts) 11:19-30; 12:25-13:3**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비로소 그리스도 인이라 일컬음을**” ----- 이민영 목사
 *찬송(Hymn) ----- 325장 (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도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누가 능히 하나님을 (사도행전(Acts) 11:12-18)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린도교회에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이 성령의 능력을 보았기에 자기 설교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셨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 성령의 역사는 단지 이 순간 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된 것도 세 번씩이나 환상을 보시고 “의심치 말고 가라”고 명하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고넬료에게 듣고 보니 고넬료에게도 생전 보지도 못한 베드로를 초청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들으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나아가 로마 장교 고넬료가 변방 이스라엘까지 파견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요 14:26).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하신 – “사람 낚는 어부게 되게 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느냐”고 고백한 것이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복음 듣고 믿게 하신 것도, 구원받은 자처럼 살게 하시는 것도,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담대하게 의지하고 간구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손길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인도하신 것은 단지 고넬료만을, 혹은 베드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협력하여 이루시는 선하심은 단지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복을 받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이 성령께서 이뤄가시는 선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모든 민족과 열방을 불러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고넬료를 파송한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서게 됩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얻는 것은 창세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 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열방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실 때,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실 때, 예수를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실 때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성령께서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일, 맡기신 일, 우리가 애써야 할 일도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크신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루시는 선은 나에게만 우리 교회에만 선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에게겐 선해보이지 않는 고난도, 가난도, 연약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순종하지만 하면 말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습니까? 또 누가 능히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이웃과 직장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지도록 기도하고 애쓸 뿐입니다.